'익산 예산시계, 벌써 2024년'

국가예산확보 속도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동시 개최

익산시 예산시계가 벌써 2024년에 맞춰지며 국가예산 확보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5일 '2023년 시책사업과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내년도 시책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분석하고 2024년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 시책사업과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전략과 예산 확보방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국가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시책사업을 다음연도 국가예산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새정부 국정과제, 도정 방침에 부합한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체감형 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사업, 시민참여와 소통 증진 사업 등으로 정하고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내년 시책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40억원 규모로 시정방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개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동산 유수지(다래못) 습지생태계 복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이다.

한편 2024년 국가예산으로 발굴된 신규사업은 35건, 총사업비 1조 8,594억원 규모다.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는 △푸드테크 공공 R&D센터 구축 △중부권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근대역사문화 디지털 체험관 조성 △학평제 생태습지 복원 등이다.

시는 보건·복지분야, 농축산·식품분야, 경제·SOC분야, 안전·환경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지속적으로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복지, 다시 이어지는 희망

군산시, 2022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군산시는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2022 군산 희망복지 박람회'를 오는 23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개최한다.

군산 희망복지박람회는 '복지, 다시 이어지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민관이 협력·기획해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박람회 슬로건을 공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박람회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영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부문과 유형별 8개 분야인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공공기관 등 50여개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 밖에도 런닝맨미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 전시관, 열린무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문화행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가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행사를 운영하며,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야간시간으로 배정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도 진행되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석권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2022 군산 희망복지박람회는 나눔과 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된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시민의 복지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기준 1987~2003년생)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소득이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부모를 포함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본인 재산 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 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개설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美 푸에블로시 시장단과 풍력발전 등 정책 논의

강임준 군산시장, 양 도시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미국내 철강산업이 가장 발달된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풍력터빈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미국 푸에블로시의 시장단이 15일 군산시를 방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군산을 방문한 대표단은 니콜라스 A. 그래디셔 푸에블로시장과 데니스 플로에스 시의원, 푸에블로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풍력발전타워 생산 글로벌기업인 CS-Wind 김성권 회장 등 총 10여명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장호 군산대총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양도시간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푸에블로시는 미국 콜로라도주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11만명의 중소도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터빈 생산시설이 입점해있고, 지난해 풍력타워 생산 글로벌기업이자 국내기업인 Cs-Wind가 진출한 지역으로 한국과 새롭게 인연을 맺게된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푸에블로시의 군산 내방은 양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풍력발전 산업의 글로벌 투자동향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특히, 푸에블로 커뮤니티칼리지와 군산대학교 양도시의 대학 총장이 함께 한 이번 면담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지역 대학간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미래산업군에 대한 체계적인 인재양성의 필요성도 활발히 논의됐다.

강 시장은 "오늘은 세계 최대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 푸에블로시와 푸에블로커뮤니티칼리지, 그리고 풍력발전타워 생산 글로벌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뜻 깊은 날이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도시간 상생할 수 있는 교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A. 그래디셔 푸에블로시장은 "이번 군산시 방문을 통해 4.7GW급의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새만금의 광활한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군산의 미래 비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금강도서관 개관 후 시민 호응 얻어

전 세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독서문화공간이 군산시 동부지역에 개관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18일 두 달 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체류형 독서문화공간으로 건립된 금강도서관이 정식 개관했다.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금강도서관 이용자는 총 52,000여명으로 1일 평균 900여명이 이용했으며 도서대출도 29,000여권으로 1일 평균 약 500여권의 도서대출이 있을 정도로 군산시민의 반응이 좋았다.

시는 동부권 지역의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들의 폭넓은 도서관 향유를 위한 인프라 확대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1억여원을 투입해 부지 1,500㎡, 연면적 3,753㎡,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금강도서관을 건립했다.

금강도서관은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기존 공장부지에 상업시설과 교육·문화·주거시설 등이 신규 조성된 복합도시 디오션시티 내 건립됐다.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감성적인 공간 콘셉으로 구축된 자료실과 금강누리다목적실은 책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가 어우러져 즐겁고 흥미로운 공간 및 커뮤니티 장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 재감염 주의보 2400명 넘어

군산에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확진자는 2,418명이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확진자는 지난 3월 4명, 4월 1명, 5월 34명, 6월 25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7월 419명, 8월 1,496명으로 BA.5 변이가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달에도 지난 1일 33명, 2일 32명 등 평균 30여명의 재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12일 30명, 13일 46명, 14일 34명 등 9일에만 436명이 재감염되며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약 300명 정도로 이중 10% 정도가 재감염에 확진되고 있다. 재감염은 1번 확진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변이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익산 주민톡' 운영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을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익산 주민톡'은 위기 이웃, 안부가 걱정되는 이웃을 주민 주도 발굴체계로,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익산시민 누구나 카카오톡 1:1 채팅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지상담을 받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제보할 수 있다.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업무종료 후에는 익일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 1회 정기적으로 각종 복지정책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과 복지 행정의 가교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